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정범 국제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 2가 35번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3층
Flr. 3rd, CISJN building #32, Chungjeongro 2 ga, Seodaemun Gu, Seoul, Korea
Tel. (82-2) 365-4016, 392-5252 Fax. (82-2) 365-4017
Internet: <http://witness.peacenet.or.kr> E-mail: jdh@peacenet.or.kr

To: Dr. Si-hyun CHO/ Chung-ok YUNE/ Hyun-ah YANG

Fax: 31-70-361-4525

From: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정대협입니다.

헤이그에서 많이 바쁘시지요?

식사들은 잘하시는지, 다들 건강하신지요.

전화를 드렸더니 안계셔서 팩스를 보냅니다.

1. 한겨레신문과 캠페인 건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결과, 한겨레신문에서는 최소한 지속적인 기사협조와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MBC와 만나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일요일에 돌아오시는대로 조시현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했으면 합니다. 2000년법정 판사단 모임과 관련하여 2000년모임을 소개하는 인터뷰입니다. 화요일자에 발행되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에 인터뷰를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시현 교수님의 핸드폰을 알려주니까 한겨레신문 교육공동체부 박민희 기자가 연락을 할 겁니다. 가능하면 Fax 한번 남겨주세요.

3 285-0245

2. 윤정옥 선생님께서 인다이 사호르와 마쁘이 아요리의 사인을 받아오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로젠바움이나 VIP를 초청하려고 하면 세분 공동대표의 사인이 필요한데, 마침 헤이그에서 만나셨으니 사인을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젠바움 등 꼭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 공동대표단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 25일날 후원의 밤은 잘 끝났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 그리고 국제공청회에 관해 정대협이 co-sponsor를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요? 건강에 조심하시구요. 월요일 법정시나리오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양미강 총무